

상익, "청정생산 품질분임조 우수사례" 시상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청정생산과 환경경영을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청정생산 품질분임조 우수활동사례"를 공모한 결과 50여개 분임조가 응모하였으며, 심사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4월 9일(화)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현대자동차(주)를 비롯한 7개 업체에서 10개 분임조가 각각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초록샘 분임조(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를 저감시키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2005년부터 강화예정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설비투자비 630억원(2004년 기준)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60%의 수질개선효과(COD 20,500mg/l → 8,000mg/l)와 악취 및 폐기물(슬러지)을 각각 85%와 50% 감소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금상을 수상한 Survival-21 분임조(한화석유화학(주))는 PVC생산공정에 필요한 냉수의 공급 및 사용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2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7,191TC(Ton of Carbon) 감소시켰다.

함께 금상을 수상한 비등석 분임조(한국동서발전(주))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경부는악취배출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유발 사업장 등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3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발생량 저감과 보일러 연소방식 개선을 통해 연간 8억6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하였다.

상의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청정생산기술을 환경보전뿐 아니라 경영수익을 개선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 전 산업계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 노출, 루게리그병 위험 2배

중금속인 납 노출이 심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육이 점진적으로 퇴화하는 치명적인 질환인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리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프레이어 카멜 박사는 의학전문지 "역학(疫學)" 5월호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루게리그병 환자 109명과 건강한 사람 256명을 대상으로 직업상 납

노출 여부와 흡연, 음주 등 생활-식사 습관을 조사한 결과 직업상 납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루게리그병 위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내에서의 납 노출과 사냥, 낚시 등 취미-오락과 관련된 납 노출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카멜 박사는 말했다.

충남,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충청남도는 6월 말일까지 월드컵 대비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기로 했다.

월드컵 개최와 관련, 유독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유독물사업장의 보관·저장시설, 유독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민간단체, 전문가, 검찰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악취배출원 감시 및 관리

악취배출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유발 사업장 등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3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악취중점관리업체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체가 398개소, 생활악취시설이 128개소로 총526개소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의 강화와 적절한 시설공정 개선 및 탈취시설의 설치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및 공정사용연료·원료, 악취발생 특성피해지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밀관리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원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악취배출업체와 생활악취발생사업장 44,96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933개소를 적발하였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 시행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온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K-OHSMS)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을 규격화해 인증하는 제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또 ISO9000 품질보증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인증심사를 받을 때 ISO9000 심사와 동시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해온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K-OHSMS)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영시스템을 규격화해 인증하는 제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산자부는 “제도 운영은 한국인정원(KAB)이 맡게 되며 체계적인 산재 위험관리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젠 취급사업장 관리강화

노동부는 벤젠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10ppm에서 1ppm으로 강화(10배)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지난해 10월 대림산업 취급근로자 조(당시 50세)씨가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 현재까지 총10명의 벤젠 직업병자가 발생하였고, 현행 노출기준(10ppm) 미만에서도 벤젠 취급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백혈병 등의 직업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벤젠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 대표,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쳐 벤젠의 노출기준

을 1ppm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부산, 폐기물 배출 위반 20개 업소 적발

부산시는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199개 업체를 선정해 최근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사상구 학장동 D특수금속과 사상구 감전동 H금속(주), B산업(주)(대표 김영일) 등 3개 업체는 목روط형 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 소각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강서구 송정동 B폐차장 등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환경오염 배출업소 157개소 적발

서울시내 자동차 정비업체나 세차장, 병원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8% 가량이 환경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시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1천98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7.9%인 15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세차시설 32곳, 인쇄·사진시설 21곳, 도장시설 19곳, 섬유·

염색시설 13곳, 병원 11곳, 귀금속·장신구시설 9곳, 기타 5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섬유업체인 성동구 성수1가 S물산 등 50개 사업장은 먼지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U세차장 등 5곳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인쇄업체인 K문화 등 48곳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으며, 기타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54개 업소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금속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적발

인천시내 일부 업체들이 중금속이 대량 함유된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몰래 버려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 5월 3일까지 인천시내 1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이중 1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인천 부평구 청천동 단추제조업체인 J회사의 경우 납(Pb)이 허용기준치(1mg/l)보다 22배나 많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해오

인천시내 일부 업체들이 중금속이 대량 함유된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몰래 버려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 5월 3일까지 인천시내 1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이중 1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다 적발됐다.

이 회사가 몰래 버려온 폐수에서는 중금속외에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130mg/l)보다 33.7배,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5배, 부유물질(SS)은 27.2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 서구 가좌동 S업체도 납과 COD, SS가 기준치보다 최고 4.3배나 많이 포함된 폐수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적발된 업체 중 J와 S, K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10일간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50원으로 인상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값이 이달부터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됐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2월부터 시행해 온 "일회용봉투 유상판매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장 넓이가 1천평 이상

인 전국 286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비닐봉투 가격을 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쓰레기 과태료 2배 인상

월드컵을 앞두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이 2배씩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25개 각 자치구청에 쓰레기투기 과태료를 2배로 올리고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의 40~50%로 올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데 이어 용산구가 먼저 1일 쓰레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인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등은 현행과태료 10만원, 신고 포상금 5만원에서 각각 20만원, 10만원씩 2배 올랐다.

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현행과태료 20만원, 보상금 10만원에서 과태료 40만원, 보상금 20만원으로 인상을 봤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팎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구청장이 고시해 최고 1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축폐자재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50만원, 보상금 25

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 보상금 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담배꽂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포상금 2만원이며, TV·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포상금 5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단속권을 일부위임하기로 했다.

광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지난 4월 30일 22~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40개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지도·단속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청은 이중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남 영암군 S석재 등 7개 업체를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정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전남 장성군 S전자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산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월드컵에 대비해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며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유독물 사업장의 자체 방제계획, 운송로 파악, 자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칼텍스정유(허동수 대표이사)는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LG칼텍스정유가 개발한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주 사업장인 여수공장의 환경, 보건, 안전의 핵심요소인 대기, 수질, 폐기물, 개인건강정보관리, 사고관리 등 70여개의 주요 항목을 통합, 웹페이지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LG칼텍스정유, 환경·보건·안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LG칼텍스정유(대표 허동수 대표이사)는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LG칼텍스정유가 개발한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주 사업장인 여수공장의 환경, 보건, 안전의 핵심요소인 대기, 수질, 폐기물, 개인건강정보관리, 사고관리 등 70여개의 주요 항목을 통합, 웹페이지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LG칼텍스정유측은 이 통합정보시스템이 정부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배출량 총량규제" 등의 환경정책을 적극 수용한 시스템으로 각 공정별로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등의 배출현황도 실시간으로 점검, 기준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익산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가 저유황 중유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정부가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군산시와 익산시를 황함량 0.3%의 저유황 중유를 사용토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익산시는 10월부터 공장과 아파트 등에서 저유황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기업·골프장 오폐수 방출 무더기 적발

삼성전자 태안공장, 무안공항, 안산하수종말처리장, 썬힐골프클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기업공장, 공공사업, 골프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가 실시된 이후 3월까지 대상업체 473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3건을 적발, 부담금 4억 480만 원을 부과했다.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는 수질·대기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배출부

과금과 별도로 사업체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지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협의 설정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태안공장은 지난 98년 공장 내 폐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ppm, 질소 40ppm, 인 3ppm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2000년 부담금 370만원을 냈다. 기아차 화성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도 폐수처리장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 각각 140만원, 27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협의기준(BOD·COD 20ppm)을 지키지 못해 7660만원을 부담했고, 부산시의 장림하수종말처리시설도 1억 3870여만원을 물었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2000년 11월 51만원을 납부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한 전남 무안공항 오수처리장 건설도 협의기준 초과로 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경기 광릉·그린힐·세븐힐스·션힐·신라, 전남 무안골프장, 강원 강촌·센추리21골프장 등도 부과대상이었다.

오는 10월부터 시화·평택·성남공단내 입주업체들은 황합량 0.3% 이하의 초저황중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시흥·평택·성남을 저황중유 공급 및 사용 의무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시화공단 등 초저황중유사용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시화·평택·성남공단내 입주업체들은 황합량 0.3% 이하의 초저황중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시흥·평택·성남을 저황중유 공급 및 사용 의무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공단내 업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종전에 사용하던 황합량 0.5%이하 대신 0.3% 이하의 초저황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인천과 안산(반월공단)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초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됐다.

초저황중유 사용 의무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시화 등 3개 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아황산가스 및 미세먼지 분석결과 대기오염수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환경오염업소 5곳 적발

울산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대기분야 1곳, 수질분야 4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범서읍 창평산업(대표 조정환)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울주군 상북면 성화인더스트리(대표 류기수)는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며 중구 태화동 우성세차장(대표 박미자)과 중구남외동 부산종합카서비스(대표 서내순)는 기준치 이상의 세제를 배출해 각각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동구 방어동 한마음세차장(대표 이동욱)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